



SUNG KYUNKWAN UNIVERSITY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보도자료

담당

참조

참조

[자료문의] 동아시아학술원 유교문화연구소 설준영 (02-760-0788, 010-5091-0400)

‘건학 616주년 기념 학술회의’

“경학(經學)에서 철학으로 그리고 어디로?” - 동아시아, 근대 전환기 학술의 양상 -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14년 추계 학술회의 개최”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는 <경학(經學)에서 철학으로 그리고 어디로? - 동아시아, 근대 전환기 학술의 양상>이라는 대주제 아래 2014년 1년 동안 총 3회에 걸쳐 연속적인 학술회의를 진행한다. 학술회의의 목적은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학문 방법이 언제 어떻게 끝이 나고, 근대적인 학문 방법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밝히려는데 있다.

전통 학문은 경사자집(經史子集)의 틀에서 연구되었는데, 사상 문화는 경학의 영역에 해당되었다. 근대 학문은 과학의 독립 이후, 분과 학문 체제로 전문화의 길을 걸었다. 현대에 이르러 다시금 근대의 분과 학문 체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분야 간의 ‘통섭’과 ‘융복합’ 그리고 ‘간학문’과 ‘초학문’ 등의 새로운 경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동아시아의 전통학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근대 학문으로 전환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을 알아야만 동아시아인의 관점에서 근대 학문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밝힐 수 있고, 동아시아 학문 전통에서 ‘통섭’을 요구하는 시대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길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교문화연구소는 형식적 논의를 극복하고 하나의 대안을 찾기 위한 시도로서 2014년 학술회의 주제를 <경학(經學)에서 철학으로 그리고 어디로? - 동아시아, 근대 전환기 학술의 양상>으로 잡고 총 3차례에 걸쳐 연속적인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그 첫걸음으로 지난 5월의 춘계 학술회의에서는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의 학술 개념에 대해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근대 전환기에 서양으로부터 유입된 학문이 한국과 중국의 사회와 학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도 시도되었다.

추계 학술회의에서는 종전의 논의를 좀 더 심화시켜 한, 중, 일 3국의 구체적인 학술양상에 대해 살펴보는 장을 마련했다. 분과학문의 발달로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학계는 분야마다 영역을 설정하고 통섭, 융복합의 길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구의 학문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사상체계와 융합을 시도했던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인들의 모습을 통해, 이번 학술회의가 지금의 우리 학계를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4년 9월 27일 (토) 13:30~18:00
- 장소 :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5층 31511호

□ 별첨

1. 2014년 추계 학술회의 일정표
2. 발표논문 요약문

▣ 등 록 13:00~13:30

▣ 개회식 13:30~13:40

사회: 모영환(유교문화연구소)

개회사: 신정근(유교문화연구소장)

▣ 주제발표

13:40~14:10 ○ 서구 세계를 접한 유교 지식인의 사유세계
—발표 : 김석근 (아산정책연구원)

14:10~14:40 ○ 야마가타 반토의 실학
—발표 : 배관문 (한림대학교)

14:40~15:00 휴 식

15:00~15:30 ○ 에도시대 일본의 난학과 뉴턴적 물질관의 수용
—발표 : 김성근 (전남대학교)

15:30~16:00 ○ 유가의 철학화
—발표 : 양일모 (서울대학교)

▣ 종합토론 16:00~17:30

▣ 폐 회 식 17:30

▣ 만 찬 18:00

【 발표1 】

서구 세계를 접한 유교 지식인의 사유세계
- 유길준의 <개화의 등급>을 중심으로

김 석 근(아산정책연구원)

• 발표 개요

유길준은 대표적인 개화파의 한 사람으로, 최초의 일본, 미국 유학생이었다. 19세기말이라는 시점에서 그는 새로운 문명과 세계를 접할 수 있었다. 유교적인 소양과 지식을 가졌던 지식인이 서구의 새로운 세계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했으며, 또 그가 했던 생각의 폭과 깊이는 어떠했을까.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식인으로서의 그는 문명과 개화, 그리고 독립에 대해서 그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가 살았던 시대는 이중적인 국제질서, 즉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와 근대적인 서구 세계질서가 만나서 같이 (애매하게) 존재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조선으로서는, 적어도 청일전쟁 이전까지는 중주국임을 주장하는 청나라의 관계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동시에 일본을 위시한 서구 국가들과의 관계 역시 부인할 수 없었다. 그 같은 상황 하에서 조선의 지식인으로서의 유길준이 생각했던 조선의 위상과 앞날은 또 어떠했을까.

이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이번 발표는 최초의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진 《서유견문》, 구체적으로 14편 <개화의 등급> 분석을 통해서 유길준의 생각의 폭과 깊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개화-반개화-미개화, 실상개화와 허명개화, 개화의 주인-손님-노예, 개화의 죄인-원수-병신 등의 범주 설정을 통해서 그가 경계하고자 했던 것, 말하고자 했던 것, 그리고 나아가고자 했던 ‘개화’의 에센스를 추출해보고자 한다.

【 발표2 】

야마가타 반토의 ‘실학’ - 주자학과 천문학 사이

배 관 문(한림대학교)

• 발표 개요

흔히 일본에서 ‘실학’이라는 개념은 동아시아 삼국의 ‘실학’과는 다소 다르게 인식된다. 적어도 오늘날 일본에서 ‘실학’이라고 말할 경우, 그것은 실증적·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학문 정도의 뜻이다. 이러한 실학 개념의 원형을 제공한 것은 잘 알려진 대로 후쿠자와 유키치가 주창한 ‘實業之學’이다. 후쿠자와는 ‘實學’이라는 한자 위에 ‘사이언스’라고 훈을 달았듯이, 이때의 실학이란 넓은 의미의 과학, 즉 서양학문을 의미했다. 그리고 후쿠자와의 실학 개념을 ‘혁명적 전회’라고 높이 평가하며 현대에 재발견한 것은 마루야마 마사오였다. 마루야마가 말하는 문제의 핵심은 학문의 실용성이라는 실학의 주장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생활이 어떠한 식으로 결합할 수 있는가에 있다. 무엇보다 그 결합방식의 근본적 전회는 ‘학문’의 본질구조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마루야마의 날카로운 점이다.

전근대에서 근대로 ‘학문’ 자체가 본질적으로 전환되는 지점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 글에서도 ‘실학’은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실학’이라는 개념이 전근대뿐만 아니라 근대, 아니 현대까지도 끊임없이 의미를 재구성하며 사용되고 있는 상황은 동아시아 삼국이 마찬가지로 인 듯하다. 그렇다고 동아시아 공통의 ‘실학’ 개념을 추출한다거나 일본 실학사의 계보를 구축하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쓰일뿐더러 시대적으로도 변용을 거듭해온 개념을 고정된 어떤 범주로 정의하는 일은 애당초 가능하지도 그다지 유의미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18세기 중후반부터 19세기에 걸쳐있는 에도 시대 후기, 즉 일본의 근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 학문의 방법론이 어떤 면에서 연속되고 혹은 단절되는가 하는 물음을 배경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다룰 대상은 근세 후기의 유학자 야마가타 반토(山片蟠桃)로, 당시 오사카 회덕당(懷德堂)의 지를 집대성한 그의 저술 『꿈 대신에(夢ノ代)』는 실학적 사고에 기초한 계몽서로 손꼽힌다. 특히 지동설에 대한 적극적 지지, 무신론·무귀론, 신화와 역사의 구별 등의 내용이 합리주의·실증주의의 관철을 보여주는 예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반토의 실학관은 메이지 초기 후쿠자와의 실학관에 매우 근접한, 사실상 근대적 사상에 거의 닿아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반토의 경우는 주자학이 서양의 자연과학과 접하면서 해체되기는커녕 유학의 본질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결국 그의 실학은 막번 체제 내에서 현실을 긍정하는 ‘왕도론적 경제론’의 한계로 규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이 글의 문제의식은 오히려 반토의 실학과 후쿠자와의 실학을 연장선상에 두고 논할 때 근세 학문의 ‘선진적인 근대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당연하게 전제되는 실증성·합리성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에도시대 일본의 난학과 뉴턴적 물질관의 수용
- 物(matter) 개념의 번역을 중심으로

김 성 근(전남대학교)

• 발표 개요

본 논문은 에도시대 일본의 난학자들을 중심으로 전통적 物 개념이 뉴턴 과학의 物(matter) 개념으로 번역되는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일본의 근대정치사상가 마루야마 마사오는 메이지의 개화론자 후쿠자와 유키치의 실학의 의의를 ‘도리로부터 물리로의 전회’로 규정했는데, 그것은 후쿠자와를 통해 일본의 학문이 내면적 성찰의 주자학으로부터 외적 자연계에 대한 탐구의 과학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마루야마는 그 같은 ‘도리로부터 물리로의 전회’가 후쿠자와의 실학에 의해 완성되었지만, 멀게는 에도시대 고학자들의 사상 안에 주요한 문제의식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보았다. 그처럼 오규 소라이, 타자이 슌다이 등 에도시대의 고학자들을 시작으로 니시 아마네, 그리고 후쿠자와 유키치의 사상을 관통한 주자학적 리의 재해석과 ‘물리’의 발견은 19세기 일본이 동아시아 인국과는 달리 서양의 근대과학을 성공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해명하는데 상당한 설득력을 발휘해왔다. 왜냐하면, 서양 근대의 과학적 세계관의 정수라고 볼 수 있는 ‘물리’의 자생적 성장이야말로, 일본이 서양과학의 재빠른 수용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루야마가 논했던 것처럼, 에도시대 고학자들의 ‘물리’와 서양 근대의 과학적 세계관, 특히 그 정점에 위치하는 뉴턴의 ‘물리’ 사이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유사성이 있었던 것일까? 시대적 차이로 인해 비록 두 ‘물리’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과연 에도시대 고학자들의 ‘물리’는 뉴턴적 물질관이 의미하는 ‘물리’로 발전 가능한 것이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학자들의 ‘물리’와 뉴턴적 물질관의 ‘물리’ 사이에는 여전히 엄청난 간극이 가로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의 개념을 둘러싼 동서양의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 때문이었다. 일본에 뉴턴적 물질관의 물(matter) 개념을 태동시킨 것은 에도의 고학자들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네덜란드어를 통해 서양학문을 수용했던 난학자들이었다. 본고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서양 근대과학의 물(물질) 개념이 일본에 수용된 과정을 시즈키 타다오, 아오치 린소, 카와모토 코우민, 히로세 켄교 등 에도시대의 난학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본고의 순서를 소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에도시대 난학의 대가이자 뉴턴 역학의 선구자였던 시즈키 타다오의 ‘물’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그가 뉴턴적 물질관의 ‘물’ 개념을 동아시아 전통의 ‘기’ 개념에 의해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검토하게 될 것이다. 제3, 4장에서는 아오치 린소의 ‘물’ 개념과 린소의 ‘물’ 개념을 더욱 구체화시킨 카와모토 코우민의 ‘물’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린소와 카와모토가 뉴턴적 물질관, 즉 물에 대한 원자론적 이해에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해 돌아볼 것이다. 제5장에서는 에도시대 말기 교과서로 널리 사용되었던 히로세 켄교 저 『理学提要』(1852)의 ‘물’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난학자들의 ‘물(matter)’ 개념과 ‘자연(nature)’이라는 어휘의 탄생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 발표4 】

유가의 철학화 - 1920년대 량치차오의 저작을 중심으로

양 일 모(서울대학교)

• 발표 개요

이 발표는 1920년대 량치차오의 저작을 통해 전통학문으로서의 유가가 근대적인 형식을 지닌 유가철학으로 자신의 위상을 변모해 가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철학은 근대 중국에서 서양의 분과학문의 하나로서 중국에 수용되었다. ‘유가철학’이라는 명칭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전통학문인 유가가 서양의 근대적 학문인 철학의 한 부분으로 - 유가철학과 철학의 관계는 실로 복잡하지만 - 성립된 것이다. 고대 중국에서 제자백가의 한 학파로 분류되어 온 유가는 청나라 말엽까지 2000여 년 동안 중국의 정치와 사회, 사상과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왔다. 그렇지만 20세기를 전후하여 중국과 서양의 만남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서양의 근대적 학문 체계가 중국에 소개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학문 체계로서 존립해 온 유가(유학, 유교)는 근대적 학문 분류 체계 속에 자신의 위상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지역은 동양으로 표상되었고, 이에 비해 서양 혹은 서양의 철학과 과학이 우위를 차지하는 근대라는 시대적 조건 속에서 유가는 유가철학으로 그리고 동양철학의 주요 부분으로 자신의 위상을 설정하면서 철학이라는 근대적 학문 분과로 편입되어 갔다. 유가가 유가철학으로 자신의 위상을 정립하는 과정은 단순한 융합이 아니라 중국과 서양, 전통과 근대의 문제를 넘어서 유가와 철학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요청하는 문제이다.

유가와 철학의 문제가 본격화되는 것은 1920년대이다. 1917년 중국에서 신문화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이래 공자로 대표되는 유가는 타도와 청산의 대상으로 평가되었다. 1910년대 후반 서양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고 서유럽과 그 문화에 대한 불안이 팽배해갔다. 서양의 현실을 슈펜글러는 “서양의 몰락”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러한 세계사적 배경 속에서 중국에서는 신문화운동의 전반서화론을 비판하면서 동방문화를 제창하고 신구문화의 조화 또는 중국과 서양문화의 조화를 주장하는 동방문화파가 등장했다. 1920년대는 서화파와 동방문화파가 대립하던 시기였으며, “과학과 현학 논쟁” 역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유가가 철학으로 위상을 바꾸어가는 과정 또한 이러한 시대적 조건 속에서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중국철학사의 이름으로 최초로 간행된 텍스트는 세우량(謝無量)의 『중국철학사』(1916)였다. 곧이어 미국에 유학했다가 1917년 차이위안페이(蔡元培)의 초청으로 베이징대학 문과대학에서 강의하기 시작한 후스(胡適)가 쓴 『중국철학사 대강』 상권(1919)이 간행되었다. 이로부터 바로 10년 뒤, 항저우의 즈장(之江)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던 중타이(鍾泰)가 『중국철학사』(1929)를 출간했다. 이처럼 중국의 전통 학술이 철학사의 형식으로 간행되기 시작하면서 유가는 유가철학으로 정착해 간 것이었다. 량치차오는 19세기 말 정치적 변혁운동의 중심에서 있던 인물이었지만, 만년에는 『공자』(1920), 『청대학술개론』(1921), 『선진정치사상사』(1922), 『중국근삼백년학술사』(1924), 『유가철학』(1927) 등을 통해 유가의 철학화 작업에 적

지 않은 역할을 해 왔다. 이 글은 동서비교문화론이 활발하게 논의되던 1920년대 중국의 정치와 문화, 학술사적 배경 속에서 량치차오의 유가의 철학화 작업을 분석하면서, 중국의 근대적 학문이 형성되는 과정의 일면을 밝혀보고자 한다.